[홈] [지식사회포럼 개요] [지식사회포럼가족] [지식사회연수프로그램] [지식사회특강] [지식사회총서]

여기서부터 ………………………………. 사진을 넣을 것 ……………………………………………………………………………… 여기까지

\*로그인 섹션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지식사회특강\*

\*협의사항은 박재윤(010-3061-2363, [jypark1941@gamil.com](mailto:jypark1941@gamil.com))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지식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1. 목적**

인류사회가 바야흐로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사회로 이행해가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지식사회가 종래의 산업사회와 무엇이 다른가를 이해시키며, 한 조직이 지식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2. 대상**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임원과 간부급 직원

**3. 강사**

박 재 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사의 프로필에 대하여는 [지식사회포럼가족]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시간**

질의 응답 포함 100분(조정 가능); 시간대는 수강자에게 편리한 시간대로 함.

**5. 장소**

수강자가 편리한 장소로 강사가 방문함.

**6. 교재**

강사가 사전에 보낸 특강자료를 유인물로 배부하여 사용하며, 『21세기를 사는 9가지 지혜 – 지식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2014년 6월 한국경제신문 발간)를 참고교재로 함.\*

\*참고교재에 대하여는 [지식사회총서]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7. 차례**

**“지식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차 례**

제1부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인류사회의 발전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화

지식화

지식

제2부 지식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경쟁의 범위가 다르다 – 글로벌화

경쟁의 속도가 다르다 – 초고속화

경쟁의 방식이 다르다 – 파트너링

경쟁의 결과가 다르다 – 합병

제3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망

비전을 확실히 세우라.

지식경영화하라.

아홉 가지 지혜로 무장시키라.

**8. 요 약**

**“지식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요 약**

**제1부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인류사회는 채렵사회(기원전 38천년경-기원전4~3천년경), 농업사회(기원전4~3천년경-18세기중엽), 산업사회(18세기중엽-20세기말엽)를 거쳐 이제 지식사회(20세기말엽 이후)로 이행해 가고 있다. 채렵사회에서는 자연자원, 농업사회에서는 비옥한 토지, 산업사회에서는 숙련노동력(산업혁명기, 1760-1830), 자본(전기산업사회, 1830- 1913), 그리고 기술(1913-20세기말엽) 등이 경쟁력의 원천이었으나 20세기 말엽부터는 지식, 즉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인류사회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인류사회가 지식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엽에 컴퓨터가 발명되면서부터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제1세대컴퓨터(1947-57)는 수천개의 진공관, 제2세대컴퓨터(1958-63)는 트랜지스터, 제3세대컴퓨터(1964-70)는 통합회로, 제4세대컴퓨터(1971-현재)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도입함으로써 더욱더 강력해지고 작아지며 가벼워지는 발전을 보게 되었다. 제4세대컴퓨터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용퓨터(PC), 즉 데스크탑컴퓨터와 노트북컴퓨터를 도입하고, 컴퓨터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발전을 보게 되며, 전통적 도구와 컴퓨터의 융합convergence을 보게 되어 인류사회의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게 되었다.

정보화는 인류사회의 경쟁력의 원천을 산업사회에서의 기술로부터 정보로 바꾸어 놓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초 이후 20여년간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20세기말엽에 이르자 정보화의 능력은 선진국들 간에 점점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정보를 활용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 기조가 산업사회에서의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체제를 ‘소품종다량생산’으로부터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생산과정을 ‘자체조달방식’으로부터 ‘아웃소싱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과업중심의 특화를 기초로 한 상하체제’로부터 ‘과정중심의 팀웍을 기초로 한 네트워크체제’로, 그리고 종업원들의 신분을 ‘전일제 종신직 피용자’로부터 ‘시간제 계약직 동반자’로 바꾸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진행되어 온 정보화는 20세기말엽에 이르러서는 지식화로 진일보하였고 이에 따라 인류사회는 지식사회, 즉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바뀌게 되었다. 지식은 기왕에 존재하는 물적 요소들로부터는 물론 기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도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물질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점에서 기술과는 차별화된다.

지식은 개인적 지식을 말하는 암묵적 지식과, 그것이 자료화된 명시적 지식으로 구분된다. 지식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남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 들지 않는 무한자산이다.

**제2부 지식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지식사회는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와는 첫째, 경쟁의 범위가 다르다. 인류사회의 경쟁의 범위가 종전의 개별 국가로부터 전세계로 확대되는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경제생활은 물론 문화생활, 그리고 정치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생활이 종전의 지역적, 국가적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지구적,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게 된 것이다.

둘째, 지식사회에서는 경쟁이 ‘초고속화’되고 있다. 경쟁을 함에 있어서 허용되는 시간이 크게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가 기업들의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업들의 공급의 변화가 다시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환이 정보화로 인해 종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경쟁을 위해 허용되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게 된 것이다. 기업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들은 고도의 정보력을 동원하여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경쟁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다.

셋째, 경쟁의 방식이 산업사회에서의 경쟁자적 방식으로부터 지식사회에서는 동반자적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업의 구성원들이 과업별로 특화하여 숙련된 기능을 경쟁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과정 전체를 공동으로 맡아서 축적된 지식을 공동으로 동원하여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간다. 이에 따라 동료들 간, 상하급자 간, 그리고 내외부자 간의 관계가 모두 경쟁자 관계로부터 동반자 관계로 바뀌게 된다. 파트너링이 경쟁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끝으로, 지식사회에서는 경쟁의 결과가 다르다. 인류사회에서의 경쟁이 글로벌화하고 초고속화하고 파트너링화함으로써 통합, 합병, 인수 등의 형태로 기업들 간의 결합의 빈도와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커지게 되었다.

**제3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망**

인류사회의 지식사회로의 이행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보기술은 네트워킹이 가속화되고, 컴퓨터의 입력방식이 다양화되고,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나노기술이 더욱더 도입되고, 컨텀컴퓨터가 도입되며,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발전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사회는 더욱더 글로벌화하고, 초고속화하고, 파트너링화하며 기업간 결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식사회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즉 혁신지식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전을 확실히 세우라.**

어떤 조직이 인류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조직의 비전이 확실히 세워져야 한다. 인류사회에서의 성공이란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비전은 사명과 가치, 그리고 전략으로써 구성된다. 사명이란 한 조직이 인류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가치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지켜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전략이란 어떠한 방법으로 가치를 지키면서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모든 조직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비전의 체계와 내용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한 경우가 허다하다. 조직의 비전은 무엇보다도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의 비전은 사명과 가치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그것과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위한 조직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식경영화하라.**

한 조직이 지식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경영이 지식경영으로 되어야 한다. 지식경영이란 지식을 기업의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인식하여 기업의 지식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에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을 말한다. ‘지식경영부’를 두는 것이 지식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의 경영이 지식경영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식성장모형’에 의하면 한 조직은 여섯 단계를 거쳐 ‘지식기업’ 에 이른다. 제1단계인 지식인지의 단계에서는 기업이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 및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종류, 크기, 가치 등이 조사·평가되고, 종업원 개인의 개인적인 지식 및 능력이 중요시 되고 기업 내부의 기존 인력과 외부의 신규 인력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제2단계인 지식조직화의 단계에서는 지식의 극대화와 그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이 조직과 업무절차를 재편하며, 비핵심적 기능을 외부에 의존함에 따라 비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던 종업원들이 이직의 압력을 받게 된다.

제3단계인 지식네트워킹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외부와 내부 간, 그리고 기업 내부의 각 부서 간의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의사결정의 분산, 범기능적 팀의 활용, 그리고 외부공급자 및 자영인들과의 협력이 증대된다. 제4단계인 지식보상의 단계에서는 개인 혹은 팀 별로 지식을 기준으로 승진, 급여인상, 스톡옵션 등 각종 유인이 강화된다.

제5단계인 지식제고의 단계에서는 기업 및 종업원의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훈련에의 투자 증대, 지식과 생산과정 간의 연결의 정치화, 연구개발 및 훈련의 외부 공급자와의 연결이 강화된다. 제6단계인 지식기업의 단계에서는 성장전략과 경쟁전략이 지식을 기반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다.

**‘9가지 지혜’로 무장시키라.**

앞으로의 지식사회가 요구할 혁신지식은 세가지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이 그것이다.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정보력과 창의력과 협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9가지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조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고 어떠한 원칙 아래 어떠한 계획으로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를 구상할 수 있기 위해, ‘비전을 세우는 지혜(지혜1)’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정보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의 ‘바이링구얼이 되는 지혜(지혜2),’ 그리고 컴퓨터의 활용에 능통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랑하는 지혜(지혜3)’를 갖추어야 한다.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구비하기 위하여는, 사물을 ‘시계열로 보는 지혜(지혜4)’와 ‘횡단면으로 보는 지혜(지혜5),’ 그리고, ‘역발상을 도모하는 지혜(지혜6)’를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협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비경쟁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시너지를 추구하는 지혜(지혜7),’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코칭파트너가 되는 지혜(지혜8),’ 경쟁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승승사고를 가지는 지혜(지혜9)’를 갖추어야 한다.

이들 아홉 가지 지혜에 대하여는 졸저『21세기를 사는 9가지 지혜 – 지식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한국경제신문, 201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고, 이들 9가지 지혜를 조직의 구성원들, 특히 20대후반~50대초반의 젊은 구성원들에게 심어주고 구사하게 만들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식사회연수프로그램: 지식사회에서의 성공 - 21세기를 사는 9가지 지혜』라는 제하에서 “지식사회포럼”(대표 박재윤)이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의 조직의 지식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의 조직의 젊은 구성원들을 이들 “9가지 지혜”로 무장시킬 것을 강력하게 제언하는 바이다.

\* 그림의 모양을 좀 멋있게 잡아 주세요.

지식사회지혜모형

21세기 지식사회

지혜1: 비전을 세우라.

비 전

혁신지식

지혜4: 시계열로 보라.

지혜5: 횡단면으로 보라.

지혜6: 역발상을 도모하라.

지혜2: 바이링구얼이 되라.

지혜3: 컴퓨터를 사랑하라.

정보력 + 창의력

협 력

지혜7: 시너지를 추구하라.

지혜8: 코칭파트너가 되라.

지혜9: 승승사고를 가지라.

특징: 종합적·체계적; 동기부여·행동요령; 실습위주·완전체화

이 게시물을

[홈][지식사회포럼 개요] [지식사회포럼가족] [지식사회연수프로그램] [지식사회특강] [지식사회총서]